

#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문화기술적 접근\*

## An Ethnographic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Teenage Heads of Family

김 민 정\*\*  
Kim, Min Jung

### ABSTRACT

Employing an ethnographic approach, this case study analyzed the psychological welfare of 2 teenage and one early-twenties heads of family. The subjects were Sun-Ju (female, age 22, seamstress), Ji-Hyun (female, age 14, junior high school student), and Seung-Hwan (male, age 16, junior high school student). This study was processed between 9 March 1996 and 11 May 1996.

The results show that teenage and early-twenties heads of family have ambivalent feelings, meaning two extreme psychological conditions that are not consistent. Three types of teenage-early twenties heads of family ambivalence were caused by diverse role dimensions (e.g., nursing, supporter, beneficiary, and independent subject roles).

Revision of the present welfare system, particularly the protection system for teenage-early twenties heads of family was recommended. Further research is also needed to determine various factors harmful to their psychological welfare.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연차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단계적 및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는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구조적으로는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되었고, 동시에 전통

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가정생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부모의 가출, 별거, 이혼 등과 산업 재해 및 교통 사고 등에 의한 사망으로 발생한 가족 결손과 해체 현상을 들 수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증가했고 아동가장은 이러한 사회, 가족관계 변화 속에서 나타난 소산물들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수도 계

\* 본 연구는 1996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한국프리벨 유아교육연구소 연구원

속 증가하고 있다.

아동가장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들은 가사와 함께 동생을 돌볼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질병까지 지니고 있는 한쪽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결여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는 등 복합적인 곤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김교회, 1988; 남순백, 1988; 우경연, 1986; 오승숙, 1990; 이경희, 1988). 이렇게 볼 때, 아동가장이라는 형태의 보호는 오히려 이들 청소년에 대해 소위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사회적 확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아동가장들은 소위 '제2의 탄생 시기', '질풍노도의 시대' 라고 표현되는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선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온전한 가정에서 특별한 부담을 지니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업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런데 아동가장들은 이러한 부담 위에 그 부모들도 힘들어서 마다한 '가장'이라는 책무를 동시에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이소희, 1996).

따라서 아동가장형태의 보호가 사회적 확대가 아니라 진정 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활 실태를 구체적이지자,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되, 그 차원은 우선 심리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아동가장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 즉 경제적 지원, 지역 사회의 보호와 지원, 심리적인 각종 지원등이 제시되어 왔

는데, 이에 관한 분석을 해 보면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제시를 하였고, 또 그에 상응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나 심리적 측면의 대책에 있어서는 대화나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피상적인 심리적 원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김희진, 1995; 문선화, 1992; 신영배, 1994; 신인수, 1993; 오승숙, 1990; 진충달, 1992).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아동가장을 위한 심리적 복지 대책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 중요한 이유를 이들의 심리적 욕구와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한 방법상의 결여에 있다고 보았다. 왜냐 하면, 심리적 복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들이 그 범주가 넓고 피상적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들은 지각 가능한 표면적인 현상들만을 볼 수 있을 뿐,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생활과 내면세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문은 아동가장으로서의 생활방식과 심리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일정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들이 가진 심리적 문제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단정짓는 오류까지 범할 수도 있다. 사실 형식적으로는 같은 아동가장이라고 해도 그들 모두가 다양한 삶을 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욕구와 요구 및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간과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대책의 수립에서 제기된 방법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즉 아동가장의 심리적 욕구와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문화기술적 접근방법(ethnography)을 통하여 아동가장의 형태에 따른 삶과 그들의 심리적 복지를 저해

하는 문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 정의

본 연구의 핵심용어인 아동가장과 심리적 복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아동가장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동가장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적 지침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3가지 형태에 해당되는 인간으로 정의한다.

① 현재 20세 이상이지만 10대에 아동가장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계속 가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청소년.

② 청소년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거나, 책임질 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정부로부터 아동가장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③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 예를 들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결손 및 빈곤가정의 청소년으로 정부로부터 아동가장으로 책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 2) 심리적 복지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신체적 복지 및 물질적 복지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심리적 복지란 인간이 그의 안녕에 대해 느끼는 모든 주관적 느낌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 3.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 1) 연구방법-문화기술적 접근방법

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특정집단의 문화를 기술하고, 해석하여 문화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의 특성은 연구자가 선정한 대상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집중적인 관찰을 실시하되, 연구자가 그 상황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내부자 관점과 상황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질적 방법론이라는 점이다(이혜정, 1989). 또 문화기술지는 '대표성'과 '일반화의 가능성'으로서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실증적 조사(survey)가 해낼 수 없는 부분, 즉 문화기술지를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구한 내용이 피부에 와닿게 함으로써 사상적 공감과 그에 관한 진실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뛰어난 방법론이라는 것이다(이지연, 1995). 또한 문화기술지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념들을 해부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가시화 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과 문제들을 표면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조경진, 1992).

이렇게 볼 때, 문화기술적 방법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동가장들의 삶, 그 삶에서 느끼는 심리적 요구(need)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표면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 문화기술적 접근을 사용한다.

### 2) 연구 대상자

연구자의 물음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그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정보제공자(informan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hunting) 일차적으로 아동상담소, 사회복지관, 구청 등의 관계자와 중고등학교 및 대학원학생들을 통해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여 27명의 아동가장을 확보했다. 다음, 확보된 아동가장을 대상으로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과작업(screen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여과작업 과정에서 최종적인 연구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은 정보제공자의 나이, 성(sex), 아동가장이 된 배경, 가족형태, 가족 구성원 수와 성격이 각기 다른 -특수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정보제공자들 중에서 그들의 참여도를 제일 우선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가 된 아동가장은 박선주(가명, 여, 22세), 임지현(가명, 여, 14세), 김승환(가명, 남, 16세)이다. 이 세 명의 정보제공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아동가장의 개념과 일치하며, 또 이들은 아동가장이 된 배경, 성(sex), 나이, 가족형태와 가족구성원의 수와 성격이 달라서 같은 아동가장이되 각기 다른 특수한 삶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는 정보제공자이다. 그리고 기꺼이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동의했다.

선주는 22세로 현 직업은 미싱사이다. 십대에 아동가장이 되어 지금까지도 여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다. 지현이는 14세의 여중생으로 아버지가 중풍이 들어 부양 능력이 없어지자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함께 가출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때부터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승환이는 16세의 중학생으로 할머니(75세)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없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으로 만들어져서 동사무소의 보조를 받고 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자와 아동가장과의 인터뷰는 1996년 3월 9일부터 1996년 5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첫번째 만남에서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와의 친밀

감(rapport)형성에 주력했고 연구자와 정보제공자는 이후 2개월 동안 일 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만날 것과 서로의 요구나 필요가 있을 때는 공식적 만남 이외의 비공식적 만남도 갖기로 약속했다. 연구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정보는 그 자리에서 기록할 수 있음과 필요할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다는 허락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면접(un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아동가장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다시 전사본(transcripts)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현장노트와 전사본을 토대로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작업으로 수집된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전사본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읽을 때는 정보제공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녹음된 테이프를 함께 듣기도 했다.) 심층분석하여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 사례(case)를 구조화 했다.

## Ⅱ. 아동가장의 삶을 통해 본 심리적 복지분석

본 연구는 아동가장의 형태(type)에 따른 다양한 심리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아래와 같이 세 형태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선주는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 동생까지 양육하면서 부모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선주를 실질적 가장으로 보았다.

지현이는 엄마의 자리가 빈, 아버지만 계신 가정에서 엄마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 가장으로 보았다.

승환이는 호적상으로는 아직 엄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가장이 될 수 없었으나 승환이 할머니는 수입이 없는 어려운 생활

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승환이를 아동가장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승환이를 아동가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호적에서 승환이만 떼어 내서 동네의 통장 집 호적에 올려놓았다. 마치 승환이가 홀로 되어 버린 것처럼 만들어서 아동가장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승환이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할머니가 가장이자 부모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승환이를 명목상의 만들어진 가장으로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선주, 지현, 승환이에게 공통적이면서도 두드러지게 표출된 심리적 갈등은 양가감정이다. 물론 이 양가감정은 이 세 사람이 가장으로 자리매김된 상황에 따라 양가감정을 느끼는 부분, 성격, 정도가 달랐다.

### 1. 실질적 가장 선주-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삶과 심리적 갈등

#### (1) 양육자로서의 가장

선주는 자신이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고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선주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을 위한 삶을 유예시키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런 삶 속에서 선주는 때때로 동생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선주는 다시 이런 자신의 감정에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억눌러 버리고 만다. 즉, 선주는 양육자로서의 '나'의 삶과 개인 '선주'로서의 '나'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선주:가장이라는 생각 들지요. 당연히 들지요. 안 들면 안 되지요. 글썽. 가장이라는 게, 가장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단지,

나는 언니고 동생을 데리고 있으니까 동생만큼은 어른들 앞에서 욕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을 더 잘 돌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내 껌(내 것을)너무 많이 포기해야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게 너무 짜증나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없지만 내 마음 속에는 동생이 내 생활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땐 '내가 언니로서의 자격이 있나?'이런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괴롭지요. 그런데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동생이 짐스럽고 귀찮으면서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왔다갔다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 (2) 보호대상자로서의 가장

선주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내 본 모습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얼마큼 맞추어 살아야 할지 그것이 고민이다.

선주: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열심히 산다, 요즘 보기 드문 아이다, 성실하게 산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내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도 그러질 못하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속이면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괴로워요. 어떨 땐 내가 이중 인격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동생 돌보는 게 사실 짜증 날 때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만큼 속에서는 굼아 터지잖아요.

#### (3) 홀로서기의 주체로서의 선주 자신의 삶

① 방송통신 대학생 그것이 내 꿈이에요.

선주는 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래서 선주는 다음 과정으로 방송통신 대학에 가고 싶어한다.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만 지금 선주의 형편으로는 대학진학이 어렵다. 그 이유 역시 동생을 뒷바라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선주에게는 동생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선주는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선주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 사이에서 갈등한다.

선주: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대학 가는 거예요. 방송통신대학 가서 나도 남들처럼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 동생을 갈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 해요.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짜증이 나고 화가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늘 묻혀 살 수는 없는 거고, 나는 나대로의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다른 삶이 있으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죠.

② 여가시간이 불안한 삶-‘나’는 쉬는 것이 더 힘들어요.

선주는 지금까지 특히 작년까지 숨가쁘게 살아야 했다. 한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했고 하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선주는 돈이 되는 일이나 생산적인 일(무언가를 배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했다. 그래서 요즈음 때때로 여가시간이 나면 그것이 두렵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여가시간을 즐기고 가져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주는 여가 시간에 대해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선주도 여가시간이라는 것을 즐겨 보고 싶다. 그렇지만 때때로 여가시간이라는

것이 생활의 사치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불안하다.

선주:아직까지도 무언가를 안 하면 무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해볼까? 이런 궁리도 해 보고 그래요. 방통대도 안 다니면서 괜히 EBS 방송 틀어놓고…… 그래서 널널하면(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난 왜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열일곱 살 때부터 작년(스물한 살 때)까지 여가시간이라는 걸 가져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생학교 보내고, 설거지해 놓고 막 뛰어나가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학교(야학)갔다가 끝나면 집에 오고…… 올해 야학을 졸업하고 나서 옛날보다 시간이 많이 널널해졌어요. 지금은 직장 다니고, 집안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뒤통수 맞는 일이 터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방통대를 꼭 가려고 하는 것도 어쩔 그런 시간들이 두려워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다가도 나도(시간적으로) 놀면서(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조 뭐.

③ 내적 갈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친구’를 찾게 됐어요. 그게 또 걱정이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주의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큰 의미가 되지 못했다. 선주에게는 가장으로서의 생활, 선주 개인으로서의 생활, 일터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선주가 야학을 졸업한 후 시간적 여유를 조금씩 가지면서부터, 또 그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면서부터 선주는 친구라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결국 선주는 자신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로 ‘친구’를 찾게 된 것

이다. 하지만 친구와 어울리면서 선주는 또 다른 불안감과 갈등을 겪는다. 갈등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찾은 친구와의 관계 맺기가 이제는 또 하나의 걱정과 불안을 선주에게 던져 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선주:사실은 제가 먼저 친구들(야학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다가갔어요. 개네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지 않더라구요. 내가 오히려 일부터 전화해서 만나자고하고 그랬어요. 술도 마시러 가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내 힘든 것, 생활, 고민 같은 거 털어놓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놀면서 날라리같이 살아도 되는 건지. 이런 걱정도 해요. 아직도 그 해답은 못 찾았어요. 늘 이랬다저랬다 해요.

## 2. 반쪽 가장 지현이-반쪽 가장으로서의 삶과 심리적 갈등

### (1) 부양자로서의 가장

#### ① 내가 힘들때, 아빠가 미워요.

지현이는 아버지를 부양하는 '부양자'이다. 지현이는 아버지가 밉고 싫다. 그러나 지현이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자신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괴롭다.

지현:아빠가 피 토하면 그거 받아내구, 방 치우고, 빨래 하고, 설거지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일복도 터졌고, 고생복도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짜증도 많이 나구요. 난, 참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아빠가 밉고 귀찮죠. 내 팔자도 드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참 우울해요. 왜냐면 나는 아빠 딸이니까

그런 말(생각) 하면 안되니까.

#### ② 아버지 상실에의 두려움-또 다른 빈 자리가 생긴다구요?

지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지현이가 아버지의 상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지현이의 가정에는 현재 엄마의 부재라는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다 아버지까지 안 계신 또 다른 빈 자리가 생긴 가정이 두렵기 때문이다. 지현이에게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존재면서도 의지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지현이의 양가감정을 읽을 수 있다.

지현:사실 아빠가 돌아가시는 꿈을 자주 꾸거든요? 그러면 꿈이지만 너무 무서워요. 꿈을 깨고 나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할려고 해요. 아니, 하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에요. 내가 엄마역할은 할 수 있지만 내 동생이 아빠 역할은 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아빠까지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빠가 우리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낼 때는 나도 '왕짜증'나서 나 혼자 살면 편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 따라 죽는 게 낫지. 아빠도 없는데 나 혼자 동생이랑 어떻게 살아요?

### (2) 양육자로서의 가장

지현이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동생 돌보는 그런 일 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싶다. 그러나 지현이의 현실은 지현이가 열네 살의 중학생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지현이 자신도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야 할 시기인데 동생을 돌

봐야 한다는 것은 지현이에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다. 그래서 지현이는 동생 양육자로서의 삶과 지현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갈등한다.

지현:동생이 나쁜 애들과 어울리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애들이랑 -깡패 같은 애, 날라리 같은 애- 어울려 다녀서 걱정돼요.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하면 동생이 “누나가 뭔데 참견이나”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니 맘대로 해라.” 이러다가도 누나가 돼가지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가 나요. 나는 저(동생)땀에 놀지도 못하는데. 그러구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것도 못하는데. 동생이 그런 말 하면 꽤심하죠. 하지만 어떡해요? 동생인데.

### (3) 보호대상자로서의 가정

① ‘눈치’ 보기,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지현이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지현이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현이가 ‘권위’라든가, ‘힘’이 있는 존재에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지현이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현이는 연구자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면서 결눈질로 주변 사람들(인터뷰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다)의 눈치를 흘끔흘끔 살피기도 했다.

지현:제가요, 동네 어른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거든요? 동네 어른보면 하기 싫을 때도 무조건 인사하거든요, 저한테 잘 해 주든 아니든. 새벽에 일어나서 동네 전체를 청소하기도 하구요.

제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저를 잘 봐가지고 돈도 좀 더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동네 어른 보면 인사 잘하라고 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동네 할아버지들이 칭찬해 주고 예뻐해 주세요.

② 평범한 아이로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이해받고 싶어요

지현이는 자신의 생활이 비슷한 또래의 일반적인 생활과 틀린 점이 많다고 해서 자신을 특별히 다르게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저 자신을 엄마, 아빠가 계시는 여느 가정의 아이를 보듯이 그렇게 봐 주기를 원한다.

한편으로 지현이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고 싶어한다. 동정받는 것은 싫지만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한다. 지현이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가장이 아닌 아이로 평범하게 보이고 싶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동가장이기 때문에 이해받고 싶어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지현: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엄마 없는 집에서 엄마를 대신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엄마, 아빠 다 계신 집의 아이 대하듯이 대해 주면 좋겠고, 그러구 나를 ‘가장’으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난, 가장이 아니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화가나요. 죽어버리고 싶게. 난 아빠도 살아계시잖아요.

지현이가 학교생활에서 바라는 점은 친구들이 아동가장이라고 자신을 따돌리지 말고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자신의 처지를 동정해서 더 잘해 준다거나 무시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지현이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지현이의 삶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친구관계에서 지현이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요인이 지현이가 자신의 삶을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현이는 학교생활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서 이해받기를 원하지만 동정은 원치 않는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동정 사이에서 지현이는 양가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지현: 제 환경이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약속한 걸 자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저를 약속 안 지키는 애로 취급하고 따돌려요. 이상한 애, 엄마 없는 애. 이런말까지 하면서. 그때 너무 울고 싶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친구들이 나를, 내 형편을 좀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정하는 건 싫고 그냥 평범한 아이로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제 처지를 알게 되면 그냥 평등한 대우를 해 주면 좋겠어요. 보통 가정의 애들처럼. 잘한 일은 똑같이 칭찬 받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똑같이 야단맞고. 저희 가정을 들먹이면서 봐 주는 건 싫어요. 선생님이 저를 봐 주면 부담스러워요.

(4) 홀로서기 주체로서 지현이 자신의 삶

① 아빠! 때리지 마세요. 나도 그럴 땐 정말 왕 짜증나요.

지현이는 아버지가 몸이 아플 때 괜히 신경질 부리고 때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화내고 자신을 때릴 땐 동맥을 끊고 죽어 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자신이 죽어 버려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와 동생이 걱정되어 마음먹은대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

지현: 아빠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자주 때려요. 짜증나니까. 그냥 이유없이 때릴 때도 많아요. 나도 힘들고 왕짜증나는데 아빠가 생트집을

잡아서 때리면 그냥 콧 죽어 버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아빠한테 맞고 너무 억울하고, 왕짜증나고 화가 나서 여기(손목을 들어 보이며) 자르고 죽어 버릴려구 했어요. 나 하나 죽어 버리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빠가 평생 마음 아프게. 근데 제 나이가 아깝잖아요? 제가 진짜 죽으면 내 동생은 어떻게 해요? 그러구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 했어요.

② 부잣집, 혼자 살아 보는 것

지현이가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혼자 살아 보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현이가 엄마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읽을 수 있다. 자신의 현재 생활과 역할이 너무 힘에 부겁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지현이는 혼자 살아 보고 싶다가도 아버지와, 동생이 걱정된다. 지현이는 혼자 독립해서 살아 보고 싶다는 욕구와 아버지와 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느낀다.

지현: 현재는 저 혼자 살아 보고 싶어요.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아빠랑, 동생걸을 떠나서. 하지만 지금은 어렵잖아요? 아빠도 아프고,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 땐 그런(혼자 살고 싶다)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구, 부자로 살고 싶어요. 모래시계에서 고현정처럼 그렇게 큰 집에서 공주처럼. 그러면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잘 할 수 있구.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③ 대학가는 것- 성공의 지름길

지현이는 성공하고 싶다.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그 길만이 자신을 위하고 엄마, 아빠 육 안 먹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현이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대학까지는 공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학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는 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현이가 꼭 대학까지 나와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학력위주의 사회이고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수직 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현이는 자신의 현재 집안 형편으로 대학까지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학은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내가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 지현이는 현재 대학에 가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현재 형편을 생각하면 자신의 대학 진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구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지현:대학은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꿈을 세웠는데요, 이 다음에 대학갈 때 의상 디자인과 가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예요. 유명 디자이너가 되면 이름도 날리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연구자:디자이너가 되는 길은 꼭 대학을 가는 것 말고도 복지학원 같은 곳을 통해서도 가능하잖아, 그런데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지현:요즘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요. 무시도 안 하고. 사실 대학 나와도 노는 사람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도 어쨌든 대학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 형편으론 대학가는 게 좀 어렵지요. 그 생각을 하면 답답해요. 하지만 꼭 가고 싶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만……. 아빠가 빨리 일을 다시 하면 (대학)갈 수 있잖아요? 그 날만 기다려야죠. 대학에 못 가는 건 생각하기 싫어요.

### 3. 만들어진 명목상의 가장 승환이-만들어진 가장으로서의 삶과 심리적 갈등

승환이는 '가장'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는 형식적으로 '가장'이라고 포장만 된 이름만의 명목상의 가장일 뿐이다.

#### (1) 보호대상자로서의 가장

① 형식적인 후원 행사 참석에 대한 거부감  
- '그놈의 돈이 뭔지'

승환이는 아동가장(소년소녀가장) 모임에 가기 싫어한다. 하지만 가야한다. 왜냐 하면, 모임에 나가야만 단돈 십 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환이는 '놀면 뭐하나 가서 앉아 있다가 설교나 들어 주고 십만원이나 받아 오자.'는 심정으로 아동가장 모임에 간다.

승환이가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그토록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그 모임이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후원 행사에 가 봐야 천편 일률적인 이야기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훌륭하게 성장하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는 승환이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아동가장들의 모임, 그것은 가기 싫지만 그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앉아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될 수 없다.

승환:구청에서 하는 소년소녀가장(본 연구의 정보제공자 중에서 승환이만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했다.) 모임이 있는데 그

것도 정기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기 정말 싫는데 안 가면 돈(십만원) 안 주니까. '놀면 뭐 하나' 이런 마음으로 돈 때문에 가요. 연설도 뻔해요. 어려움을 이기고 훌륭히 자라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는 자기 네나 잘하지 '너나 잘해', '잘났어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② 할머니의 통제에 대한 불만. 그렇지만 할머니의 상실은 두려운 아이

승환이는 놀고 싶다. 하지만 놀고 싶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승환이의 생활에 대한 할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가 놀고 싶은 승환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승환이는 자신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할머니가 부담스럽다.

할머니가 승환이의 생활에 간섭을 하고 시간을 통제하는 데는 할머니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승환이에게는 한살 위인 형이 하나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집을 나가 버렸다. 할머니는 승환이도 승환이 형처럼 집을 나가버릴까 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비행 청소년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다. 그래서 승환이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면서 승환이의 하루 스케줄에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는 것이다. 승환이는 할머니가 자기에게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주었으면 한다. 그것이 현재 승환이의 가장 큰 바람이다.

사실 승환이 할머니는 본 연구자와 승환이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도 개입을 하고자 했다. 승환이가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통제를 했다. 그래서 연구자와 승환이는 승환이의 집에서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승환:할머니가 놀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 학교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와야 해요.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다 보면 좀

늦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막 뭐라고 하니까. "씩을 놔야 어디서 뭘 지랄하다가 이제 오냐"고 욕하면서 야단치니까 그게 싫어요. 잔소리도 듣기 싫구.

승환이는 지금의 할머니가 통제하는 생활이 답답하고 싫으면서도 할머니가 안 계신 생활은 생각하기 싫다. 이를 통해 승환이도 지현이처럼 동거자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동거자 부재의 상황 사이에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승환:할머니가 학교 끝나면 아무 데도 못가게 하고 못놀게 하는 것이 싫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이 낫잖아요?

③ 평범하게 보이고 싶은 아이. 그렇지만 이해받고 싶은 아이

승환이가 학교생활에서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은 지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지 않고 모든 활동에 끼워 주는 것이다.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리거나 부모 없이 사는 자신의 생활을 특별한, 이상한 환경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을 평범하게 봐 주고 자신과 같은 환경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를 바란다.

선생님들에게 바라는 점은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동정하지 말고 '평범한 아이' 대하듯이 대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승환이는 자신의 환경 때문에 누군가의 동정을 받는다고 느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가장 슬프다고 한다. 승환이도 역시 지현이처럼 주위의 동정과 이해에 대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승환: 친구들이 저를 편안하게 생각하구요, 놀러 가거나 무슨 얘기할 때 따돌리거나 무시하지 않구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통 아이들 처럼. 친구들이 평소에는 잘 해 주다가도 조그만 일로 싸우면 우리 집 얘기를 꺼내면서 '애미애비 없는 새끼'라는 말을 하면서 욕을 할 때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선생님들은 저한테 잘 해 주세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저를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나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다른 애들은 야단치거나 때리면, 저를 봐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싫어요. 그러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동정받는 것 같아서. 저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남한테 불쌍하게 보이는 건 싫어요.

(2) 홀로서기의 주체로서의 승환이 자신의 삶

승환이는 빨리 직장을 가져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어한다. 승환이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나에게서는 쳐다보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발버둥쳐서 대학까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뱍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다리가 찢어 질테니까- 승환이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데는 직장을 빨리 가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다.

승환: 공고 졸업해서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 배워서 정비 기술자가 되는 거. 빨리 돈도 벌고. 대학교, 가고는 싶지만 못 가니까.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서 돈 벌어야죠. 주제 파악해야죠? 뱍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다리가 찢어진 다구 그러잖아요.

### Ⅲ. 요 약

선주, 지현, 승환이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가장 각 형태별 심리적 복지 요약

##### 1) 실질적 가장 선주의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선주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양육자의 입장에서 동생을 위한 삶과 '나'의 삶 사이에서, 보호대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와 '내 본 모습' 사이에서, 홀로서기의 주체로서 대학진학, 여가시간, 친구와의 만남에 대해 갈등하면서 양가감정을 느낀다.

##### 2) 반쪽 가장 지현이의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지현이는 반쪽 가장으로서 부양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해, 양육자의 입장에서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삶과 열네살 짜리의 삶 사이에서, 보호대상자로 '힘'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평범한 아이로 보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홀로서기의 주체로서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해, 독립하고 싶은 욕구에 대해, 대학 진학에 대해서 갈등하면서 양가감정을 갖는다.

##### 3) 만들어진 명목상의 가장 승환이의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승환이는 만들어진 명목상의 가장으로 보호대상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후원행사에 참석하는 것, 할머니에 대해, 홀로서기의 주체로서 대학진학과 현실에서의 순응 사이에서 갈등하고 양가감정을 갖는다.

2. 아동가장의 공통된 심리적 복지 요약

1) 실질적 가장 선주와 반쪽 가장 지현이의 공통된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 양육자로서의 삶과 자신을 위한 삶 사이에서 느끼는 양가감정 -

선주와 지현이는 동생을 돌보는 양육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주와 지현이는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인적인 ‘삶’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갈등한다. 때문에 양육자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느낀다.

2) 지현이와 승환이의 공통된 심리적 갈등과 양가감정

① 보호대상자로서의 양가감정 - 지현이와 승환이는 ‘보호대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평범하게 보이고 싶어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받고 싶어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현이와 승환이는 양가감정을 갖는다.

② 부양자에 대한 양가감정 - 지현이와 승환이는 부양자(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불만과 부양자 상실에 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부양자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는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방법을 통하여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를 저해하는 특성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일관성이 결여된 양극 상태의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는 양가감정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양가감정은 앞절에서 요약 기술한 바와 같이 아동가장의 형태

에 따른 가장으로서의 역할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방법, 이론적 함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 기조 및 이와 관련된 복지대책상의 허실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 앞으로 요보호 아동으로서의 아동가장에 대한 복지대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포함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해 아동가장의 삶을 심리적 복지라는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그려내어 선행연구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문화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기술적 방법을 통한 문화의 이해와 그 분석은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할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은 연구자 및 정보제공자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 관계이면서 합목적적인 일치의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하에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구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적 시각과 해석의 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얼마간 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연구자가 보는 사회학적 현상과 해석 그 자체도 하나의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아전인수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 결과는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구성원의 시각은 개인의 체험적인 학습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사상적 주입에 의해 형성되기가 쉬운 오늘날의 실정을 감안할 때 다분히 관념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화기술적 방법의 시도에서는 복수의 연구자 내지 전문 훈련을 받은 보조 연구자가 공동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각과 해

석이 낳을 수 있는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실험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관찰의 일치도’를 원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아동가장의 심리적 복지사례를 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사회학 쪽에서 문화기술지로 논문을 쓴 연구자와 협의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기본적인 신뢰관계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보고식의 정보 제공은 ‘주변 상황’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Patton, 1980).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장소가 주는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미화, 비화시킬 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증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Merriam, 1988, 허미화, 재인용). 예를 들면 같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그 ‘정보’를 다양한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므로써 비교 분석한다던가, 정보제공자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접하고,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던질 수 밖에 없는 질문의 타당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Patton, 1980; Sabshin, 1981, 허미화, 재인용). 이 경우는 전문가 집단의 숙의를 통한 내용타당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은 구조화에 집착한 나머지 문화기술적 방법이 가지는 개방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 2) 이론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라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를 인간이 그의 안녕에 대해 느끼는 모든 주관적 느낌이라 정의함과 동시에 신체적 물질적 복지를 포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으로 이 양가감정을 유출해 낼 수 있었는데, 이 특성은 아동가장들의 일상 행동에서 기저를 이루는 심리적 구인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하위 개념으로서의 ‘양가감정’은 양극단적인 방향성을 가진 개념이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서 양가감정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가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혼한 한쪽 부모와 사는 아동, 재혼하여 복합 가정을 이루어 사는 가정의 아동, 만성질환자인 부모와 사는 아동 등이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심리적 구인으로서의 양가감정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요보호 아동으로서의 아동가장 대책의 기초  
아동은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시공을 초월한 것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일정 연령에 대한 기준과 어느 정도의 대책인가 하는 수준상의 차이인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연합의 아동의 권리 선언(1959)에서 일찌기 천명한 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아동은 그 부모, 특히 어머니와 그 친가정에서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문해 볼 점은 아동가장은 이러한 아동복지대책의 기초에 부합되는가 하는 점 및 아동가장의 경우는 긴박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긴박한 상황’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긴박

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라면 물질적 지원에 의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은 그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부모는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역할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만큼 중요한 것은 아동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위험한 환경에서 보호하며, 자기 발전을 위한 자기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Kadushin, 1984). 특히 어떠한 결정이 좋을지 망설일 때에 부모의 조언은 결정적 타개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지원은 물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지원인 것이다.

그러나 아동가장은 이러한 심리적 지원을 함께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동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심리적 갈등, 즉 양가감정을 현재의 생활 전반 및 미래에 까지 걸쳐서 느끼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가족복지 체제 속에서의 아동복지이다. 그러나 함께 동거하는 것만으로 가족복지의 실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동시에 아동복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한 어머니 대신 병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열네 살짜리 지현이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가감정을 고려할 때, 아동가장에 대한 정책기조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아동가장제도의 보완 내지 대체방법의 검토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보호제도

를 유지할 경우, 근본적으로 아동가장이 된 배경과 가족구조를 고려한 차별적 대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복지란 욕구와 요구에 대응한 사회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김영모, 1991).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를 고려할 때, 가사관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우미, 즉 가정봉사원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조봉희, 1990)

② 선주와 지현이의 사례에 나타난 바를 고려할 때, 결손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써 가정을 새롭게 조성시킬 수 있는 가정조성자(homemaker), 즉 좋은 어머니(good mother)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민간아동 및 가정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선주, 지현, 승환이의 전 사례에서 나타난 바를 고려할 때, 아동가장의 상담시 양가감정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우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현직교육에 반영되어 복지사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학계와 연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후원자 관리에서도 아동가장들이 양가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입양전 위탁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시적인 대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도충실을 기하여서 선주같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서로간의 왕래는 허용되는 융통성있는 보호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⑤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교육이며, 선주, 지현, 승환의 강한 욕구도 교육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 욕구가 부양과 양육이라는 양 고리에서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대학에서 농어촌 특례입학처럼 방송통신대학의 특례입학과 같은 교육조치와 시설보호도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직업훈련의 조치가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⑥ 우리 사회에서 부모역할을 하는 아동을 복지행정적 용어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부르는데 지현이의 사례를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실제로 가장 역할을 하는 아동가장은 자신이 '소년소녀가장'으로 라벨링(labeling)되는 것에 불만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을 부르는 복지행정적 용어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검토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교회(1988). 서울시 소년소녀가장가정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1991).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격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2). 가족관계학. 수문사.
- 김영모(1991). 한국가족복지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김영지(1994).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3). 조기교육현장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조기교육 담당 주체를 중심으로 본 문화기술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이상현(1994).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진(1995).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교회사회봉사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상희(1989). 권력, 성, 그리고 노동 -'뚝방동네 아줌마들'의 삶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순백(1988). 소년가장세대의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 -부산시 소년가장세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선화(1992). 버려진 아이들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대안. 소년소녀가장가정의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제2회 학술대회 자료집, pp. 75-95.
- 박성수(1990). 가정교육과 청소년비행의 관계 -심층적 면접에 의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소.
- 박성희(1992).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0호.
- 신인수(1993). 소년소녀가정의 공적부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영례(1994). 소년가장 지원전달 형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영노(1992). 록 카페를 통하여 본 젊은이 문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숙(1990). 소년가장세대에 대한 서어비스 프로그램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경연(1986). 청소년가정가장의 지원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88). 소년가장가정의 실태와 복지대책.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배근(1985). 소년가정의 현황 및 대책방안. 동광통권 제82호.
- 이소희(1996). 숙명여대 아동복지사업 대학원 강의 자료.
- 이소희, 이경희(1995).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 이지연(1995). 뽀뽀(무선 호출기) 이용을 통해 본 청소년 하위문화 연구. 연세대학교 석



- 사학위논문.
- 이필형, 이영옥(1988). 소년가장 가족보호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2권.
- 이혜정(1989). 노는 애들의 세계. 중학생 또래집단의 학교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정(1987). 중년 여성의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경진(1994). 정체성의 혼성적 구성에 관한 연구-귀국한 외교관 자녀들의 삶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봉희(1990). 소년가장가정의 실태와 대모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1993). 청소년 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 문화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4호.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충달(1992).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청원군 거주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백서(1995). 보건복지부 지침.
- 황창순(1992). 청소년 문화와 질적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연구 11호.
- Andrews, F. M. & Whit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press.
- Baruch, G. 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 - being in midlifewo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0) 578-585.
- Bradburn, N. (1969). *The structure of well-being*. Chicago: Aldine.
- Byrant, F. B. & Ver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Campbell, A. (1976). Subjective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Geertz, C .,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Kadushin (1981, 1984). *Child Welfare*. Mac-Millan Co.
- McLanahan, S. & Adams, J. (1987).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237-257.
- Sharn B. Merrian(1994). 질적 사례연구법. 허미화 옮김. 서울: 양서원.(원본발간일, 1988)
- Spradley, J., & McCurdy, D. W. (1972). *The Cultural Experience: Ethnography in complex Society*. Chicago, IL: Science Research Associatiates, Inc.
- Spradley, J. (1990). 문화탐사를 위한 참여관찰 방법. 이회봉(역). 서울: 대한교과서.(원본발간일, 1988)
- Susan stain back, William stain back, (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김병하 옮김(1992).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도서출판 특수교육.

Umberson, D. (1989a).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999-1012.

Umberson, D. & Gove, W. R. (1989). Par-

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y, measurement and stage in the family life course.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Willis, P. (1989).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외(역) 민맥.(원본발간일, 1981).